

◆ 북미

- EMB America, 2008년 허리케인의 위험성 경고
- 미국 재무부, 금융감독제도 개선안 발표

◆ 유럽

- ABI, 10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안
- 영국 보험회사 Lloyd's 2007년 세전수익은 5% 성장

◆ 일본

- 다이이치생명, 보험약관 페이지 수 대폭 감축
- 대형 손해보험회사들, 2007년 수입보험료 감소
- 스미토모생명,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업 툴 이용

◆ 중국

- 홍콩/대만계 보험회사 설립인가, 국내보험사는 '계속 대기'
- 중국, 은행의 보험회사 지분보유 허용
- 중국 보험회사, 자산운용 부문 최우수 성적표 받아

◆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

【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EMB America, 2008년 허리케인의 위험성 경고

- 계리컨설팅 회사인 EMB America는 2008년 미국보험산업의 가장 큰 자연재해 위험은 허리케인이라고 밝히고 이번 허리케인 시즌에 보험사들은 높아진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.
 - EMB America의 컨설턴트인 Alice Gannon은 “우리는 집이나 재물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허리케인의 위력을 경험해왔으며 보험사들은 아직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의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”고 밝히고,
 - “지난 2년간은 허리케인 피해가 거의 없었으나 기상학적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북대서양의 허리케인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, 이에 대한 보험사들의 대비가 요구된다”고 덧붙임.
- EMB America는 미국 손해보험사들은 2005년 카트리나와 2004년의 호우 피해를 통해 허리케인의 심각성을 경험했지만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통해 경계가 느슨해져 있다고 경고함.
 - 허리케인은 1992년 남부 플로리다를 강타하여 265억 달러의 피해를 가져온 앤드류 이후 미국 손해보험사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으나 지난 2년간은 피해가 거의 없었음.
- EMB America는 또한 최근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 토네이도와 2007년 캘리포니아 산불을 지적하며 보험사들이 허리케인뿐만 아니라 토네이도, 지진, 화재 등도 보험료 산정에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.
 - EMB America의 Tom Hattinger는 리스크 운영 전략이나 보험료 산정에 있어 보험사들은 기존의 타성에 머물지 말고 기후변화 문제 등의 장기적인 흐름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함.

(Insurance Journal, 4/2)

□ 미국 재무부, 금융감독제도 개선안 발표

- 지난 3월 31일 미 재무성은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금융 감독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“Blueprint For a Modernized Financial Regulatory Structure”를 발표함.
 - 동 보고서는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내용을 담고 있음.
- 보험산업과 관련한 핵심내용은 현재 주별로 감독을 받고 있는 보험사들이 연방감독규정과 주감독규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Optional Federal Charter (OFC)를 제공하는 것임.
 - 현재 미국의 보험시장은 주단위로 허가과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전국적인 영업을 하는 보험사들의 효율이 저해되고 미국 보험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음.
 - 개혁안은 또한 OFC의 시행을 위해 재무부 산하에 Office of National Insurance (ONI) 과 Office of Insurance Oversight (OIO)을 설치할 것을 권고함.
 - ONI는 연방감독규정을 선택하는 보험사들과 에이전시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며, OIO는 보험산업에 대한 연방단위 관심사를 시장에 투영하기 위해 시장을 감시하는 조직임.
- 이번 개선안에 대해 보험산업 내에서는 찬, 반 양론이 분분함.
- 미국 보험협회(AIA)와 보험 설계사 및 중개사 협의회(The Council of Insurance Agents & Brokers)는 개선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힘.
 - AIA의 Marc Racicot 회장은 OFC의 도입은 통합되어가는 새로운 금융시장에서 보험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재무성이 인정한 획기적인 계기라고 주장함.
 - The Council of Insurance Agents & Brokers의 관계자는 보험산업이 글로벌한 사업영역임에도 주별 감독체계는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연방감독은 “option”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.

- 이번 개선안에 대해 미국보험감독관협의회(NAIC) 회장이자 캔사스주 보험 감독관인 Sandy Praeger는 연방정부가 보험산업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대 입장을 밝힘.
 - 그는 최근의 금융혼란이 불충분한 규제 때문에 발생했으며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가 적절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보험산업은 그 산업만의 특수성을 존중할 필요하다고 주장함.
 - 또한 규제의 현대화가 연방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번 보고서에서 기존의 주보험 감독관들의 역할은 소외되어 있다고 덧붙임.
- 미국 독립 판매법인, 브로커 협회(일명 Big "I")의 CEO, Robert Rusbuldt는 연방시스템 말고도 보험 감독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며 개선안에 반대를 표명함.
 - 그는 보험감독 시스템의 일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시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보다 나은 다른 방법이 존재할 것이라고 지적함.
 - 그는 또한 OFC의 도입은 대규모 규제완화와 새로운 연방 관료조직을 요구하며 이를 의회가 쉽게 승인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의 정치적 실행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힘.
- 미국상호보험협회(NAMIC)은 효율성, 소비자보호, 이중규제 방지 등 재무성이 추구하는 가치들은 이원적인 규제체제를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안을 반대함.
- NAMIC의 CEO인 Charles M. Chamness는 재무성이 추구하는 각종 목표는 시장경쟁에 기반한 합리적인 규제 체제에서 가장 잘 성취될 수 있고, 이번 재무성 개선안은 이중규제로 한발 더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냄.
- 미국 손해보험 협회(The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)는 기존의 체제를 능률화하고 현대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시장환경은 주별로 매우 상이하며 이러한 사실 때문에 연방 규제가 모든 주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밝힘.

(Insurance Journal, 3/31)

【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ABI, 10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안

- ABI(영국보험자협회)는 보고서 “젊은 운전자들의 도로 사망 감소를 위한 4가지 제안”을 통해 젊은 계층의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 계층에 비해 2배나 사고건수가 많았다고 밝혔음.
 - 동 보고서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18세 운전자의 총돌사고율은 50대에 비해 3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, 교통통계당국의 자료에서도 젊은 운전자들이 다른 운전자들에 비해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.
- 젊은 층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높은 주된 이유는 주로 도로 운전경험 부족과 리스크를 감내하려는 성향이 높기 때문으로 나타났으며, ABI는 영국 정부에 이러한 젊은 운전자들의 총돌사고율 감소를 위한 4가지 방향을 제안함.
 - 최소한 12개월의 운전교습기간을 가질 것
 - 체계적인 운전교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
 - 젊은 운전자들이 운전시 동반 승객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취할 것
 - 야간에 여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
- ABI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으며, 20세 미만의 운전자는 일정기간의 교습 후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하고 테스트 통과 후 6개월 동안은 2명 이상의 10대를 동반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림.
 - 미국에서는 체계화된 교습 기간을 거치고 6-12개월간 동반승객을 제한하는 조치를 가진 후 효과 측정 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, 그 결과 총돌사고 건수가 평균 25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.

(ABI, 3月)

□ 영국 보험회사 Lloyd's 2007년 세전수익은 5% 성장

- 세계 최대규모의 보험시장인 영국의 Lloyd's는 최근 대재해 보험의 낮은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세전수익이 5% 상승한 것으로 지난 목요일 발표하였음.
 - Lloyd's의 2006년 세전수익은 36억6000유로를 기록하였으며, 2007년에는 38억5000유로(76억8000달러)로 5.2%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.
 -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합산비율에서는 2006년 83.1%에서 84%로 100%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Lloyd's의 올해 투자수익률은 2006년 17억 파운드에서 20억 파운드(3.88십억 달러)로 21% 상승하였음.
- 로이드의 재무담당 이사인 Luke Savage에 따르면, "Enron과 WorldCom 사태로 인해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줄이고 기업과 회사 임원을 보호할 일정 자금을 준비함으로써 세계 금융위기로부터 받은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분석임.
 -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시장의 보험계약 방식이 많이 변했으며, 현재는 일부 금융기관만 계약을 하는 수준으로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계약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.
- 지난해 여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 이후 Lloyd 역시 100여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기도 했으나, 서브프라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100여건은 매우 적은 수치라 할 수 있으며, 서브프라임과 관련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밝힘.
 - 또한 로이드는 올해 보험과 재보험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예상 수익은 2007년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.

(Lloyd's Press release & Datamonitor, 4/3)

【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다이이치생명, 보험약관 페이지 수 대폭 감축

- 다이이치(第一)생명보험은 보험의 상품내용 등을 설명하는 보험약관을 5월부터 큰 폭으로 간소화할 계획임.
- 현재 보험약관은 평균 두께가 약 2cm 정도이지만 이를 5분의 1까지 줄일 계획이며 이는 보험금 지급 누락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.
- 현재의 보험약관은 사망보장 특약과 의료보장 특약의 2권으로 되어 있고 계약과 관련 없는 특약 등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A4 사이즈로 평균 450페이지 정도임.
- 개선된 보험약관은 2권으로 되어 있던 책자는 1권으로 하고 분량은 표준적인 계약을 중심으로 90페이지 정도로 줄이며 고객의 보험계약을 기초로 필요한 특약만을 수록하여 계약자가 가입하지 않은 특약까지 기재하여 발생하는 오해를 줄일 예정임.
- 보험약관이 간소화되는 것은 정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보험계약자로 다이이치생명 계약의 40%에 해당하는 약 400만건이 대상이며 신규 계약의 약관에 대해서도 간소화를 검토 중임.
- 다이이치생명은 보험약관의 개선으로 약관에 사용되는 종이의 양이 연간 45톤 절약되고, 우송비용도 연간 3000만엔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(요미우리신문, 4/4)

□ 대형 손해보험회사들, 2007년 수입보험료 감소

- 도쿄해상니치도(東京海上日動)화재보험 등 상위 6개 손해보험회사의 2007년 수입보험료는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을 제외한 5개 회사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-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자동차보험과 주택보험의 수입보험료가 감소하였으며, 손보사들이 보험금 지급 누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자원을 집중한 결과 영업활동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.
- 수입보험료의 50%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은 전 회사에서 감소하였으며 이는 자동차 판매 대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보험 가입이 부진한데다가, 무사고 할인 증가와 경자동차 증가로 인한 보험료 하락이 수입보험료의 감소 요인이 되었음.
- 또한, 2008년 3월 자동차손배책임보험이 6사 평균 10%를 넘는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였고 이는 4월부터 평균 22.2%의 보험료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임.
- 일본 손해해보험업계는 4월부터 20%를 넘는 수입보험료 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, 자동차손배책임보험은 로우 로스·로우 수익 원칙에 따라 이익면에서 큰 영향은 없지만 수입보험료의 큰 폭의 감소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임
- 손보재팬의 영업담당 임원은 “자동차 판매대수 감소 등 시장 환경 악화로 고전하고 있지만, 4월에는 자동차보험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므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이 예상된다”고 전망하였고 나머지 대형 손보사들도 자동차보험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.
- 작년 건축기준법의 개정으로 신설주택 착공건수가 감소하여 손보사들의 화재보험 수입보험료도 감소하였음.
- 최근 주택 착공건수의 감소폭이 둔화되기 시작하였지만, 화재보험은 주택이 완성되고 나서 계약하기 때문에 효과가 늦게 나타나며 이 때문에 당분간은 화재보험의 성장이 어려울 전망이다.

(FujiSankei Business I, 4/5)

□ 스미토모생명,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업 톨 이용

- 스미토모(住友)생명보험은 지난 1일부터 고객이 필요로 하는 보장내용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업 톨을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이 영업 톨을 활용하여 영업직원의 컨설팅력의 강화를 도모할 계획임.
- 이 영업 톨은 만일의 사고를 설명하는 「미래 진단 맵」이나, 필요한 보장내용을 제안하는 「생활 이미지」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전국 영업지점에 배치하여 약 3만 6000명의 영업직원이 이용을 시작함.
- 미래 진단 맵은 사망, 개호, 의료, 노후에 관한 준비내용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,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했을 때의 의료비나 입원비용, 가족의 교통비를 거주지별 평균 데이터를 기초로 시뮬레이션함.
- 의료비를 일정금액 이상 지불했을 경우 적용되는 「고액 요양비 제도」를 활용할 경우 필요 보장액을 나타내는 등 현장에 맞는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.
- 의료비에 대해서는 고액 요양비 제도를 공제한 필요액을 표시하여 고객들의 이해를 도모함.
- 한편 생활 이미지는 제안한 보장액과 공적연금에 의한 수입으로부터 생활비로 매달 이용할 수 있는 금액 등을 제시함.
- 종전에는 통계 등에서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산출하여 그 금액에서 공적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필요 보장액으로 하여 제시하였음.
- 스미토모생명은 효과적인 영업방법을 검토하는 판매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영업직원의 컨설팅 능력을 강화하고 있음.
- 일본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영업직원의 컨설팅 능력이 보험모집에 필수요건이 되고 있으며 동 회사는 이번 영업 톨 개발에 의해 타 회사 영업직원과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(FujiSankei Business I, 4/2)

【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홍콩/대만계 보험회사 설립인가, 국내보험사는 ‘계속 대기’

- HSBC 투자회사인 HSBC생명(匯豐人壽)이 조만간 상하이(上海) 보험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됨.
 - 보감위 최종 승인만을 남겨 놓고 있는 HSBC생명은 최근 설립준비를 마무리 하고 인력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음.
 - 또 대만 귀타이진공그룹(國泰金控集團)과 신세계물산이 공동 출자한 귀타이손보(國泰財險)는 오는 5월 정식 개업을 앞두고 있는 반면, 일찌감치 보감위에 설립 신청서를 제출한 10여 개 중국 국내 보험회사는 여전히 보감위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.
- 최근6개월 동안 신규설립 허가를 받은 보험사가 전무한 가운데, HSBC생명, 귀타이손보, 신광생명 등 홍콩과 대만계 보험사가 잇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지난 해와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음.
 - 지난 해 보감위로부터 대거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중국 국내 민영기업이 출자한 회사가 대부분이었지만 금년에는 홍콩, 대만계 보험회사가 선두에 나서고 그 뒤를 이어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국내 보험사는 대부분 국유기업이 출자하고 있기 때문임.
- 더군다나 보감위는 금후 설립 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최저 납입자본금을 5억 위안으로 인상하고 자본금을 일시불로 납부토록 규정을 개정했음.
 -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보감위가 보험회사의 투자구조를 다양화 하고 자금력을 갖춘 기업 위주로 허가를 내줌으로써 보험시장의 안정성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.

(회사시보, 3/30)

□ 중국, 은행의 보험회사 지분보유 허용

- 지난 3월 31일 중국 보감위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<보험회사 주권관리 방법(심사용)>을 일반에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음.
 - 금번 공개된 <관리방법>은 보감위가 지난 해 8월 1차 의견 수렴에 나선 이후, 각계로부터 개진된 개선요구를 반영해 새롭게 발표한 것임.
 -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, 1)은행이 20% 이상의 보험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고, 2)외자 금융기구의 보험회사 지분투자 조건을 세분화 한 것임.
- <관리방법> 규정에 따르면, 중국 보감위가 허가한 금융기구를 제외하고, 어떠한 금융기구도 동일 보험회사의 지분을 20%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1차 공개시에는 ‘보감위가 허가한 보험회사 이외에는 동일 보험회사의 지분을 20% 이상 소유할 수 없다.’고 규정함으로써, 은행이 상기 정책제한에 묶여 보험회사에 직접투자할 수 없었음.
 - 하지만 지난 1월 16일 은감위와 보감위가 공동으로 "국무원은 관련규정에 부합하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는 전제 하에 상업은행과 보험회사의 상호투자를 지지한다"는 내용의 새 규정을 발표함으로써, ‘보험회사’로 제한되었던 투자주체가 ‘금융기구’로 확대되었고, 이에 따라 은행의 보험회사 지분투자 제한이 사라지게 된 것임.
- 또 하나는 외자금융기구의 보험회사 투자조건을 세분화 했다는 점임.
 - 외자금융기구가 보험회사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1)최근 1년 이내 총 자산 규모 20억 달러 이상, 2)최근 3개 회계년도 연속 흑자실현, 3)국제적 신용평가 기구의 최근 3년간 평가에서 A 등급 이상 획득, 4)자국 금융감독기관 지정 자본요건 충족, 5)기존 보험회사 지분보유 금융기구 제외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.

(경화시보, 4/1)

□ 중국 보험회사, 자산운용 부문 최우수 성적표 받아

- 최근 발간된 <중국보험시장발전보고(2008)>에 따르면, 지난 해 중국 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은 총 2,792억 위안으로 수익률이 12.2%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특히 자산운용 수익의 82% 정도를 투자수익으로 거두어 들였다는 점이 눈에 띄.
- 이자수입 220억 위안(7.9%), 고정자산 평가차익 288억 위안(10.3%), 투자수익 2,284억 위안(81.8%) 등으로 구분되는 자산운용 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러한 사실이 더욱 확실해짐.
- 보험회사가 이처럼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해 주식, 부동산 시장의 활황으로 자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, 자산운용채널 역시 크게 확대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.
- 보험회사들은 지난 해 상반기 투자자산의 상당부분을 상하이(上海)와 홍콩 주식시장에서 대형주의 주식 및 파생상품을 매집하는데 사용했으며, 이와 함께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이점을 살려 주식발행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고수익의 기반을 다진 것임.
-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, 금융파생상품 투자수익율이 69%로 매우 높고, 증권회사에 가입한 펀드 수익율이 56%이며, 주식직접투자 수익율이 32%로 은행예금 수익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고, 아쉬운 점은 파생상품과 펀드가입 규모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 수익율에 미친 영향이 미진하다는 것임.
- 한편, 보험회사 자산의 절반 이상은 채권(1조 1,753억 위안, 44%)과 은행예금(6,516억 위안, 24.4%)에 투자되고 있으며, 지난 2007년 말 기준 중국 내 보험회사가 보유한 운용가능 자산은 모두 2조 6,722억 위안으로 지난 해 연초 대비 약 37% 증가했음.

(제일재경일보, 4/1)

【 Financial Key Indicators 】

구분		07년말	08.3.21(금)	08.3.28(금)	08.4.4(금)	전주대비
금리 (%)	韓 국고채(3년)	5.74	5.18	5.17	5.14	-0.03
	美 10년국채	4.03	3.33*	3.44	4.31	0.87
	英 10년국채	4.51	4.29	4.41	4.45	0.04
	日 10년국채	1.51	1.28	1.28	1.34	0.06
주가	韓 KOSPI	1,897.13	1,645.69	1,701.83	1766.49	3.80%
	韓 KOSDAQ	704.23	615.93	636.67	648.49	1.86%
	美 DJIA	13,264.82	12,361.32*	12,216.40	12609.42	3.22%
	美 Nasdaq	2,652.28	2,258.11*	2,261.18	2370.98	4.86%
	英 FTSE	6,456.90	5,495.20*	5,692.90	5947.1	4.47%
	獨 DAX	8,067.32	6,319.99*	6,561.76	6763.39	3.07%
	佛 CAC40	5,614.08	4,533.72*	4,695.92	4900.88	4.36%
	日 Nikkei225	15,307.78	12,482.57	12,820.47	13293.22	3.69%
	中 상해종합	5,261.56	3,796.58	3,580.15	3446.24**	-3.74%
	대만 가권	8,506.28	8,524.99	8,623.48	8596.34	-0.31%
	홍콩항셍	27,812.65	21,108.22*	23,285.95	24264.63**	4.20%
환율	원/달러	938.20	1,013.90	993.00	974.10	-18.9
	원/100엔	833.33	1,023.31	997.59	951.67	-45.92
	엔/달러	112.58	99.08	99.54	101.68	2.14
	달러/유로	1.4722	1.5454	1.5809	1.5732	-0.0077
	위안/달러	7.3041	7.0525	7.0109	7.0175	0.0066

주 : *는 3/20 기준임.

**는 4/3 기준임.